C코드의 초여름

과목명 : 연출제작워크샵

담당 교수 : 김경규

학번 : 2021010382

이름 이한조

*기획의도 : 장애물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라*

*주제 :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남자의 이야기*

*장르 : 드라마*

*드라마*

*채우 (20)*

 *부모의 바람으로 대학은 갔지만 관심도 없는 학과로 진학해 꿈과 목표 없이 살고 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지연을 만나 꿈을 갖게 된다.*

*지연 (22)*

 *채우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자, 전공은 피아노. 짧은 기간동안 채우를 만나 피아노를 알려준다.*

*영훈 (20)*

 *채우의 동기. 채우처럼 성적에 맞춰 들어와 매일매일 술을 마시며 마시고 있다.*

시놉시스

**#1 채우의 집 / 낮 or 오후**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는 채우. 채우의 집은 엄청 더러운 상태이다. 그 때 땅 바닥에 놓여져 있는 휴대폰에 ‘엄마’의 전화 통화가 걸려온다. 전화벨은 계속해서 울리고 채우는 발버둥친다. 잠시 후 자신의 머리맡을 더듬는 채우. 그러다 침대 밑으로 떨어진다. 프레임 아웃 된 상태에서 전화를 받는 채우. 엄마는 그런 채우에게 전화로 잔소리를 한다.

*엄마: (v.o) 야 양채우! 너 요즘 뭐하는거야!*

*채우: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여보세요? 누구야…*

*엄마: (v.o) 니 엄마다!*

*채우: (깜짝 놀라며) 엄마!? 갑자기 웬 전화야?*

*엄마: (v.o) 어머, 얘 좀 봐, 너 또 술마셨어? 그러니까 집으로 학사경고장이 날라오지!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너 대학교 보냈는데 하라는 공부는 못할 망정 술이나 퍼마시고 다녀!? 엄마가 자꾸 한 말 또 하게 할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해야지! 언제까지나 우리가 널 책임지면서 살 순 없잖니!...*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동안 채우는 휴대폰을 귀에서 땐 후 시간을 확인한다. 시간은 낮 3시를 넘어간다.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꾼 후 하품을 한 후 바닥을 뒤지더니 옷들을 주섬주섬 꺼낸다. 냄새를 맡더니 윗 옷을 벗고 입는다. 잔소리를 하던 엄마는 잠시 조용히 있더니 채우를 부른다.

*엄마: (v.o) (짜증난다는 듯이 채우를 부른다.) 야.. 야..! 양채우!! 너 내 말 듣고 있기나 하는거야? 엄마가 꼬박꼬박 대답하라고 했지!*

*채우: (능청스럽게) 듣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잘 할게요*

*엄마: (v.o) 너 지금 그 말이 몇번째야! 허구언날 잘하겠다고만 하지, 제대로 한 적이 있기는 한거니!? 너 계속 그러면… 생활비고 용돈이고, 전부 끊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채우: (귀찮다는 듯) 알았다니까요, 엄마 나 지금 나가봐야하니까, 이따가 전화할게!*

*엄마: (v.o) 맨날 나중에 전화한다고 해 놓고 전화한적이…*

*채우: (엄마의 말을 끊으며) 네, 저도 사랑해요*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가는 채우. 문을 닫으며 타이틀 ‘C코드의 초여름’이 뜬다.

**#2 피아노가 있는 골목 / 오후**

골목 입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채우가 보인다. #1의 복장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채우, 그러던 도중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된다. 잠시 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다 담배를 길거리에 버리고 소리기가 나는 쪽으로 걸어간다. 소리가 나는 곳에는 지연이 골목길에 놓여져 있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눈을 감고 피아노에 열중하는 지연의 모습을 홀린 듯 바라보는 채우. 곧 이어 연주가 끝나자 채우는 피아노가 있는 쪽으로 걸어간다.

*채우: 저기..*

지연은 채우를 잠시 바라보더니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지연을 바라보는 채우.

*채우: (당황하며) 아니..! 잠깐만요!*

**#3 채우의 집 / 늦은 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채우. 휴대폰에서 피아노 곡들을 알려주는 채널이 틀어져 있다. 이내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멍 때리는 채우. 채우의 머리속에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다. 눈을 감는 채우, 낮에 본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이내 연주가 격해지려는 찰나 휴대폰에 전화가 온다. 일어나는 채우, 머리맡의 휴대폰을 들어 확인한다. ‘영훈’에게 전화가 오고 있다.

*영훈: (신난 목소리로) 야! 뭐해!*

*채우: 어? 그냥 있지*

*영훈: 술 마시자! 나와!*

*채우: (잠시 고민하다가) 술? 딱 대~*

웃으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자를 주워 쓰는 채우. 휴대폰을 들어 잠시 고민하다가 아까 보던 유튜브를 다시 틀고 밖으로 나간다.

**#4 피아노가 있는 골목 / 낮**

다음 날 하품하며 골목을 지나가는 채우, 피아노를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 생각한다.

C.T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가 보인다. 유튜브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채우. 자꾸 골목길 입구를 쳐다본다. 곧이어 골목으로 들어오는 지연, 그런 지연을 바라보며 채우는 말을 건다.

*채우: 저기…*

*지연: (단호하게) 죄송한데, 저 남자친구 있어서요.*

*채우: 네? 그게 뭔… 그게 아니라 어제 피아노 연주하신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고 부른건데요…*

지연은 채우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를 맡고 미간을 찌푸리며 가던 길을 간다. 그런 지연을 손목을 잡는 채우.

*채우: 딱 한번만! 딱 한번이면 되니까요…!*

*지연: (한숨을 쉰다) 한 번이면 되는거죠?*

지연은 진심으로 귀찮은 표정으로 한숨을 쉰다. 피아노 의자에 앉아 최대한 간단하게 연주하는 지연, 채우는 가까이서 열심히 집중하며 관찰한다. 연주가 금방 끝이 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지연, 채우는 그런 지연을 아쉽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채우: 끝..이에요? 뭔가 좀 더 많았던 느낌이었는데…*

*지연: (얼버무리며) 아… 이 피아노가 조금 고장이 나 있어서요…*

다시 갈 길을 가는 지연, 아쉽다는 듯 그런 지연을 쳐다보는 채우. 잠시 후 지연의 연주를 따라하며 피아노를 두드리는 채우.

**#5 몽타쥬 시퀀스 (피아노가 있는 골목, 채우의 집, 강의실 / 낮, 오후, 저녁, 밤)**

이후 며칠동안 계속 피아노를 두드리며 지연의 연주를 따라하는 것에 몰두하는 채우. (몽타쥬 삽입곡 1)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채우의 의상이 바뀐다. (구도는 그대로)

저녁시간 채우의 방. 책상에 피아노를 치는 유튜브를 틀어 놓고, 엉성하게 피아노 건반을 그려놓은 노트를 두드리는 채우.

땡볕에도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땀을 흘려가며 계속해서 피아노를 두드리는 채우, 그런 채우를 길을 가던 지연이 발견하고 바라본다.

강의가 끝나고 영훈이 채우를 불러 세운다. 술먹으러 가자는 영훈의 말을 거절하며 강의실을 나가는 채우, 그걸 강의실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연.

*영훈: 야! 강의도 끝났는데 술이나 마시러 가자!*

*채우: 아… 나 일정이 있어서 안될 거 같다… 미안해! 담에 마시자! 다음에!*

*영훈: (혼잣말로) 저 새끼.. 요즘 왜저래?*

**#6 피아노가 있는 골목길 / 낮 or 오후**

어김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하는 채우. 골목길로 지연이 들어온다. 채우는 피아노에 열중해 지연을 발견하지 못한다. 한 손에 악보를 들고 있는 지연, 채우를 바라보다 피아노로 다가간다. 피아노 위에 악보를 툭 올려 놓는 지연. 채우는 깜짝 놀라 지연을 쳐다본다.

*지연: 뭐 하나 물어볼게요, 왜 다시 연주 해달라고 하셨어요?*

*채우: (잠시 얼타다가) 어… 딱히 큰 이유는 없는데… 매일 밤마다 머리속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알고 싶었어든요…*

*지연: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알려드려요?*

*채우: (깜짝 놀라며) 네? 정말요? 왜요?*

*지연: 그냥… 요 며칠동안 계속 피아노만 치시길래…*

*채우: (쑥스러워 하며) 아… 감사합니다…*

*지연: 그럼 옆으로 좀 가봐요,*

의자의 끝부분으로 이동하는 채우, 지연은 가방을 피아노 옆에 두고 조심스레 앉는다. 피아노 위에서 악보를 가져와 채우에게 건내는 지연, 채우는 악보를 보고 뒷장도 살폈다가 앞장을 다시 보다가 다음 장을 바라보다가 지연을 바라본다.

*채우: 이게 뭐에요?*

*지연: 제가 연주했던 악보요.*

*채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투로) 아…! 음… 음…*

*지연: 악보 볼 줄 몰라요?*

*채우: (지연을 멀뚱멀뚱 바라보며) 네…*

*(서로를 바라보는 둘)*

*지연: 그러면 제가 악보 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채우: 조건이요…? 무슨…*

*지연: 담배 끊으시고, 강의 시간에 안주무시면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채우: 담배요…? (손 냄새를 맡으며) 냄새 많이 나요?*

*지연: (가방을 들며) 싫으면 됐고요.*

*채우: (다급하게) 아뇨아뇨! 끊을게요!*

지연이 손을 풀고 건반에 손을 올린다. 연주를 시작하려는 지연에게 채우가 말을 건다.

*채우: 근데 강의시간에는 왜…*

*지연: 저희 같은 교양 듣는데…*

*채우: 아… 근데 그건 왜…*

*지연: 자꾸 코를 고셔서…*

*채우: 아…*

피아노의 가장 낮은 옥타브부터 높은 옥타브까지 연주하는 지연. 그러나 도중에 몇몇 건반은 눌렸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 다시 눌러보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 강하게 눌러보는 지연. 자그만하게 소리가 울린다.

*지연: (혼잣말로) 왜 이래… 고장났나?*

*채우: 왜 그러세요?*

*지연: 피아노가 고장난 것 같은데… 소리가 안나요…*

*(채우가 소리가 나지 않는 건반을 누르자 소리가 멀쩡하게 난다.)*

*채우: 잘 나는데요…?*

지연이 다시 눌러보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 당황하는 지연의 표정. 채우는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본다.

**#7 지연의 집 / 오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연과 채우. 깔끔한 오피스텔이다. 방의 한 구석에는 EP가 놓여져 있다. 의자에 앉는 지연. 피아노 전원을 키며 말한다.

*지연: 엄청 좋은 피아노는 아니긴 한데… 피아노 연습하는데에는 별 문제 없을거에요*

*채우: 오…*

*지연: 일단 다시 연주를 다시 들려드릴게요*

연주를 시작하는 지연. (몽타쥬 삽입곡 2)가 흘러 나온다.

**#8 몽타쥬 시퀀스 2 (강의실, 지연의 집, 채우의 집, 피아노가 있는 골목 / 오후, 저녁, 밤)**

(몽타주 삽입곡 2)가 배경으로 나온다.

#5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채우와 지연의 옷이 바뀐다.

지연의 집에서 연주하는 지연과 채우.

채우의 집에서 책상에 앉아 악보를 공부하는 채우의 모습.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채우의 책상에 필기한 노트와 음악에 관한 책들이 한 권, 두 권 쌓여간다.

열심히 연주하는 채우의 손.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며 즐겁게 웃는 채우와 지연

아르페지오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채우와 그런 채우를 격려하는 지연.

이후 아르페지오를 치려하면 굳어가는 채우의 손.

피아노를 치느라 영훈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채우.

달력을 넘기며 동그라미를 치는 채우.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채우와 지연.

길을 걷는 도중에도 공중에서 피아노를 치는 시늉을 하는 채우.

강의가 끝나고 지연과 함께 대화하며 나가느라 영훈이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는 채우.

길거리의 피아노를 치는 도중 또 다시 아르페지오가 실패하자 화풀이로 건반을 두드리는 채우.

길거리의 피아노를 치는 도중 아르페지오를 쳐야 할 부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넘겨버리고 다른 연주를 하는 채우.

**#9 피아노가 있는 골목길 / 낮**

영훈과 함께 골목에 있는 채우. 영훈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영훈은 채우의 옆에서 휴대폰을 보며 연주를 듣고 있다. 열심히 연주하던 채우는 매번 틀리던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틀리게 되었고, 이내 연주를 멈추곤 깊은 한숨을 쉰다. 그런 채우를 보며 낄낄 웃는 영훈

*영훈: 잘 안돼?*

낙담하는 채우에게 담배를 건내는 영훈. 채우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 개비 집어들곤 담배를 태운다. 전화가 걸려오는 채우의 휴대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받는다.

*채우: 여보세요?*

*엄마: (소리지르며) (v.o) 야!!!! 공부하라고 대학 보내놨더니 공부는 뒷편으로 미루고 허구언날 술만 퍼 마시고, 이제는 피아노치는 여자랑 노닥거려!? 너! 당장 피아노 안 그만두고, 이번 기말고사에서 성적 평균 이상으로 못 올리면 그날부터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일이나 배울 생각해!!*

*채우: (다급하게) 엄마? 엄마!? 잠만!! 끊었네…*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바라보는 채우. 휴대폰에는 5월 23일이 나타나 있다.*

**#10 지연의 집 / 오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채우의 표정. 옆에는 지연이 앉아있다. 피아노를 치다가 매번 틀리는 부분에서 또 다시 틀리는 채우. 지연도 깊은 숨을 내쉬며 채우를 쳐다본다. 지연과 눈이 마주치는 채우. 떨리는 표정의 채우. 건반에서 손을 내려 놓는다.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주는 지연에게 채우는 무겁게 입을 연다.

지연: (격려하며)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 번 해보면 이번에는 꼭…

*채우: (지연의 말을 끊으며) 지연아… 나 피아노 그만 칠려고*

*(잠시 침묵)*

*지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자꾸 막히는건 괜찮아! 나도 잘 안쳐질 때마다 그만두고 싶었…*

*채우: (말을 끊으며) 아니야, 그냥 피아노가 질렸어.*

지연은 충격 받은 표정으로 채우를 똑바로 쳐다본다. 채우는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지연의 시선을 피한다. 잠시 후 지연이 입을 연다.

*지연: 그게 무슨 소리야?*

*채우: 그냥 질렸다고…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

*지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왜?*

*채우: (일어나며) 오늘은 먼저 가볼게, 영훈이랑 만나기로 해서…*

지연의 집을 나서려는 채우. 집 안에서 지연이 채우에게 소리지른다.

*지연: (울먹거리며) 야 양채우!! 너 이대로 가면 끝인 줄 알아!!*

멈춰있다 이내 마무 말 없이 나가는 채우.

**#11 벤치 / 밤**

영훈과 채우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각각 맥주 한 병 씩 들고 있고, 둘 사이에는 과자가 뜯겨져 있다. 맥주병의 주둥이를 서로 부딪히는 둘. 크게 한 입을 하는 둘. 영훈은 큰 소리를 내며 좋아하지만 채우는 조용히 있는다.

*영훈: (술을 마시고) 키야!! 달다 달아! 그나저나 네가 웬일이야? 오랜만에 나한테 술이나 같이 먹자고 하고,*

*채우: (우울하게) 그냥… 오랜만에 너 보고 싶더라… (영훈을 돌아보며) 나 피아노 그만 둘려고!*

*(영훈은 마시던 맥주를 뿜고 채우를 쳐다본다)*

*영훈: 네가? 갑자기? …헤어졌어?*

*채우: 아니야, 병신아! … 그냥 다 하기 싫어졌어… 분명 몇주 전 까지만 해도 몇시간 동안 쳐도 안 질렸는데… 요즘은 그냥 치기 귀찮더라고,*

*영훈: (채우를 바라보는 영훈.) …그래…. 너가 정 그렇다면야 뭐… 잘 생각했다.*

영훈은 채우를 향해 맥주병의 주둥이를 들이민다. 서로 주둥이를 부딪히고 마신 뒤 큰 소리로 감탄하는 둘.

**#12 피아노가 있는 골목길 / 심야**

골목 입구에서 거나하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 오는 채우가 보인다. 한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다. 비틀거리며 걸으면서 담배를 피고 있다. 피아노를 앞을 지나다가 피아노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채우. 잠시 바라보다가 공중에서 피아노를 치는 시늉을 한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음악. 채우 깜짝 놀란다. 잠시 멍 때리는 채우.

*채우: (혼잣말로) 다시는 안친다고 했으니까…*

다시 길을 걸어간다.

**#13 채우의 집 / 아침**

다시 어질러진 채우의 집. 침대에는 채우가 잠자고 있다. 알람이 울린다. 누워있는 상태로 머리맡을 더듬는 채우. 곧 알람을 끄고 일어난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채우. 휴대폰 잠금화면에는 6월 1일이 나타나 있다.

C.T

대충 나갈 준비를 한 채우, 평소 연주하던 피아노 곡을 흥얼거리고 있다. 곧 흥얼거림을 멈추고 한숨을 쉬는 채우.

**#14 강의실 / 낮**

강의가 끝나고 짐을 싸는 학생들, 채우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 노트와 필기구를 넣는다. 그 때 채우의 뒤에서 지연이 채우를 부른다. 뒤돌아보는 채우.

*지연: 채우야… 잠시 걸을래?*

**#15 한적한 벤치 / 낮**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있는 채우와 지연. 둘은 어색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앉아있다. 지연은 똑바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채우는 등을 숙이고 앉아 땅을 쳐다보고 있다. 잠시동안의 침묵 이후 입을 여는 지연.

*지연: (나지막하게) 너 이제 피아노 안 칠거야?*

*채우: (사이) (자신감 없이) 응…*

*(어색한 침묵이 계속 흐른다)*

*지연: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쉽다는 듯이) 알았어…*

고개를 들어 지연을 쳐다보는 채우,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다시 입을 연다.

*지연: (하늘을 바라보며) 그런데 나에겐 네가 지금 정말 피아노를 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마치 계속 흔들어서 빵빵해진 콜라같아.*

말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는 지연. 그런 지연을 바라보는 채우.

**#16 피아노가 있는 골목 / 밤**

피아노가 있는 골목을 지나가는 채우, 피아노 앞에서 멈춰 피아노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냥 지나친다. 이내 다시 돌아와 힘차게 피아노 의자에 앉는 채우. 피아노를 바라보며 작게 말한다.

*채우: (작고 진중하게) 마지막으로… 단 한번만…*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얹는 채우. 살짝 힘을 줘서 건반을 누른다. 낮은 음이 잔잔하지만 강열하게 울린다.

묵묵하게 연주를 시작하는 채우, 떨리는 손으로 한 음, 한 음, 느리게 시작한 연주는 점점 원래 템포를 찾아간다.

연주를 하며 채우의 표정은 두려워하며 떨리는 표정에서 기대하는 표정으로 바뀌어 간다. 채우의 입가엔 미소가 띄어진다.

연주는 계속 흘러가 채우가 늘 틀리던 부분을 연주할 차례가 된다. 순식간에 표정이 굳으며 잠시 주저하는 채우의 손, 하지만 이내 다시 연주를 시작하며 완벽하게 넘어간다.

채우의 표정은 두려워하던 표정에서 눈을 처음 보는 어린 아이의 미소처럼 신나하는 표정으로 바뀐다. 신난 표정으로 피아노에 몰두하는 채우,

연주가 절정을 향해 감과 동시에 템포는 점점 빨라지고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던 채우는 피아노 의자를 박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있는 상태로 연주를 시작한다.

제일 낮은 음부터 제일 높은 음까지 빠르게 연주하는 채우,

잠시 사이.

마치 짝사랑하던 여자아이에게 고백받은 것처럼 설래하는 표정의 채우.

빠르고 강렬하게 연주를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건반을 두드림과 동시에 암전.

fin